

[종합·국제]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지분 싸움' 대의원 대회 연기

내달 6일 쏠대 차질 우려

통합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정기 대의원대회가 계과 간 지분 다툼에 의해 24일 개최가 무산됐다. 시·도당 일부 구 민주계파에서는 대의원대회 보이콧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중앙당 전당대회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도당 위원장 선거권을 가진 1천300여 명의 대의원 명부가 공고일인 지난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아 대의원대회가 연기됐다. 이는 대의원선정위원회와 대의원선정을 놓고 구 민주계파와 열린우리당계 계과 간 지분싸움이 일자 구 민주계파인 국창근 도당위원장이 선거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당도 구 민주계 안배 문제로

말씀이 일면서 당원명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가 연기됐다. 시당은 특히 지난 2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시당위원장 공개모집 공고의 시한이 끝남에 따라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재공고하기로 했다.

시·도당 구 민주계파는 이와 함께 지난 18일 열린 제54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의원심사 및 대의원 구성비용 성실 반영여부'를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한데 대해 "소수계파인 구 민주계에 불리한 조치"라며 대의원 대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소수계파인 구 민주계를 존중하는 뜻에서 대의원 비율을 열린우리계 60% 민주계 40%로 안

배하도록 했지만, 구 민주계는 "소수계와 안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계파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

중앙당은 이에 따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맡기고 있으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6일 열린 전당대회 이전에 도당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중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전남도당의 경우 대의원 선정문제로 계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대의원 대회공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일정을 연기한 것이며, 광주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다음달 2일 대의원대회 개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승객과 승무원 747명을 태운 채 필리핀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의 인명구조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사고 여객선 탑승자의 가족이 세부시 항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살모넬라균 감염자 552명으로 늘어

미국에서 토마토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전국 32개 주와 콜롬비아특별구에서 최소 552명으로 증가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일 밝혔다.

이는 30개 주에서 모두 350여명의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지난 18일의 CDC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 식품안전 담당관 데이비드 애치슨은 살모넬라균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FDA 조사관들은 믿고 있다고 밝혔다.

FDA 조사관들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살모넬라균 감염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이번 주말 미국의 토마토 대부분이 생산되는 플로리다주와 멕시코 현장에서 가서 토마토 농장들과 유통 체인들을 조사한다고 FDA는 밝혔다.

연합뉴스

22일부터 새로 도입된 국민 생활 직결 법규·제도

과태료 상습 체납자 30일까지 감치 자녀 양육 협의 없으면 이혼 불가

22일부터 과태료 체납자 엄벌, 이혼숙려제 본격 시행, 인신보호법 도입, 육아휴직제 강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제도나 법규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 등이 대거 통과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 땀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있고 ▲각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고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監禁)될 수 있다. 법원은 감사의 청구에 따라 감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감치 중 과태료를 내면 곧바로 풀려난다.

◇소년범죄, 부모도 특별교육=소년법 적용 대상이 '만12세 이상 만20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보호법 시행=인신보호법 시행으로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시설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혼숙려제 도입=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

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고 이혼신청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돼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더라도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이 남아 있다면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747명 태운 비여객선 침몰

탑승객·승무원 대부분 생사확인 안돼

태풍 사망 155명으로 늘어

태풍 '풍신(風神)'이 강타한 필리핀 해역에서 21일 밤 승객과 승무원 등 747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고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호에는 승객 626명과 승무원 12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FP 통신은 현지 관리와 언론을 인용, 현재까지 4구의 시신과 생존자 3명이 발견됐을 뿐 탑승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고 여객선은 이날 마닐라를 출발, 세부로 가기 위해 필리핀 중부 시부안 섬 인근을 지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켰으며, 최대 풍속 160km에 이르는 태풍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했다. 여객선은 사고 직후 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 구조선을 파견했으나 날이 어둡고 태풍이 강해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탑승객이 많아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패색 모터보트 1척이 22일 사고 현장에 도착, 선체가 뒤집힌 채 물 속에 가라앉은 사고 여객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사야스 지역 군사령관인 페드로 인세르토 중장은 "오전 5시경 자 3명이 발견됐을 뿐 탑승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사고 여객선은 이날 마닐라를 출발, 세부로 가기 위해 필리핀 중부 시부안 섬 인근을 지나던 중 엔진 고장을 일으켰으며, 최대 풍속 160km에 이르는 태풍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연합뉴스

오바마, 매케인과 격차 15%로 벌려

美 대선 여론 지지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지지도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15% 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일 공개했다. 양대 후보간 지지도에서 15% 포인트 격차는 최근의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뉴스위크는 18~19일 전화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전국 유권자 중 51%가 오바마를, 36%가 매케인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여타 매체의 여론 조사결과 오바마가 4~5%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뉴스위크의 지지도 격차는 3배로 커졌다.

뉴스위크는 "6월 초 힐러리의 끈질긴 도전을 물리친 뒤 오바마는 경선 이후의 상승세를 만끽하고 있다"며 "힐러리 지지자들이 그에게로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중 14% 만이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면서 "(현정부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 수에 비해 오바마가 한번

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오바마는 지지도 48%로 매케인 34%를 앞지르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도 오바마가 6%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여론 조사는 이 분야에서 매케인이 아직 리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10일간 폭우 예보...중 또 자연재해 우려

올 들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40여 일 앞두고 앞으로 10일 간 중남부 지방에서 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기상국 왕시우루 부국장은 20일 창장 중·하류 등 광범위한 지역에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방적으로 200mm 이상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무원 합격으로 가는 최선의 지름길

'08년 7월 여름방학 대특강

7월 19일 전직 공무원 100명 특강

개강 7월 1일

여름방학 EVENT

Event 1: 35기 학습 14일

Event 2: 장학금 선발고사

동부고시학원 www.donghugoschool.com 062-364-1152

www.donghugoschool.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약한 40명)

교육과정

차별종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약사(의사))	차별종 2반 (사회복지사)	신규 취업자반	신규 경력자반
신규 취업반	09:00~18:00 월~금	신규 경력자반	18:30~22:30 월~금
신규 모험반	09:00~13:00 월~금	차별종 1반	19:00~22:00
신규 오후반	14:00~18:00 월~금	차별종 2반	14:00~18:00
신규 미션반	18:30~22:00 월~금	차별종 3반	14:00~18:00

※교육비 이후 시행법이 1급 국가자격증 교육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소지자 혜택 (사용장소내 7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문의 062)364-1152-3

전화 062)368-2070